

보도자료

2010년 10월 27일(수)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전파기획관 주파수정책과 김정삼 과장(☎750-2270)
주파수정책과 하준홍 사무관(☎750-2274) hajoohnh@kcc.go.kr

‘천리안위성 국산화성공 기념 및 통신중계기 활용계획 워크숍’ 개최

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최시중)가 주최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(ETRI)이 주관하는 ‘천리안위성 국산화성공 기념 및 통신중계기 활용 계획 워크숍’이 10월 27일(수) 서울 이태원 캐피탈호텔에서 열렸다.

지난 6월 27일 성공적으로 발사된 천리안위성의 통신중계기는 해외에서 제작하여 도입한 무궁화위성과 달리, 설계·제작·시험 등 전과정을 국내 연구진이 이루어낸 국내 첫 정지궤도 통신위성이다.

※ 천리안위성은 ETRI와 세트렉아이, 코스페이스, 대한항공, 엠엔엠링스, 넷커스 터마이즈, ART 등 6개 업체가 공동협력하여 개발 하였으며, 국내 15개 업체에 기술을 이전한 바 있음

이번 워크숍은 국산개발 과정에서 겪었던 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발표함으로써 향후 위성 방송통신 관련 업체의 기술개발 방향설정 등에 논의하고(세션 I), 천리안 중계기의 활용 계획을 발표 및 논의함으로써 향후 적절한 활용계획을 수립(세션 II)하는 등 통신위성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논의의 장으로 활용되었다

방통위는 천리안위성을 이용해 그동안 이용되지 않았던 Ka대역 (18~40GHz) 주파수 이용기술 및 전송기술을 개발하고, 각종 위성방송통신 장비·단말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. 특히 천리안 위성의 통신중계기를 국내 산·학·연의 기술개발 및 검증에 개방함으로써 국내 위성 R&D의 인프라로 활용하고, 기술의 상용화 단계에서 공공기관에 선도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상용서비스 활성화의 기반으로 역할을 하게 할 계획이다.

아울러 방통위는 이번 워크숍 행사에서 천리안위성을 이용해 기존 3DTV방식(side-by-side)보다 2배 선명한 HD급 3DTV 위성방송 전송 방식(dual-stream)을 시연함으로써 이번 워크숍이 우리나라의 정지궤도 통신위성 개발능력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. 끝